

컴퓨터를 쉬이 익히려면……

이 영 길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컴퓨터 배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컴퓨터의 사용법을 배우다는 것은, 각 사람이 쓸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컴퓨터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은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것만 이해하도록 하고, 실제로 사용할 소프트웨어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문서를 작성하려면 ‘호글’과 ‘하나’ 등의 워드프로세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제각기 수많은 명령어를 구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명령어와 그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 명령 몇 가지만 이해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비

록초보적 사용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나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말로만 듣던 컴퓨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와 친숙해지고 흥미를 갖게 되면 점차 높은 수준의 기능을 사용해 보려는 욕구도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새로운 명령을 하나 하나 사용해 보면 그야말로 효과적인 배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줄 알고 있다. 어떤 이는 초보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려고 욕심을 부리는가 하면, 명령어를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정말 재미없고 힘든 일이다. 명령어는 자주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하게 되며, 억지로 암기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

컴퓨터는 반드시 만져보면서 익혀야 한다.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없듯이 컴퓨터를 몸소 조작해보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것 없이 컴퓨터를 마음껏 주물러 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도 숙달되어야 컴퓨터를 신속하게 다룰 수 있다.

갈수록 컴퓨터의 사용방법은 쉬워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은 몸소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쉬운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